갈등 · 화해 · 희망

은호기 (미국 · 시사평론)

한국에서 온 초청장

2003년 5월 21일, 한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한 통의 등기편지를 받았다.

그간의 민주화활동에 감사하며, 2003년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에 우리 부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정은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 주일간. 해외민주인사 한마당을 시작으로 청와대 방문, 옛 안기부터, 서대문 독립공원(옛 서대문 형무소), 도라산 역, 판문점 등 현장 방문, 광주5 · 18국립묘지 참배, 각종 초청만찬회 등 빡빡한 일정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

이 초청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문뜩 김상돈 선생님, 임창영 선생님의 생전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어서 수많은 선배님들, 동지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이 분들의 공을 내가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기뻤다. 옳고 떳떳한 삶과 행동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늘 따갑고 차가운 눈초리를 받아온 우리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외롭게 혼례를 치른 우리 부부가 30 여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동반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기쁨도 보태어졌다.

같이 초청 받은 외국형제들

올해로 두 번째인 2003년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에 초청되어 참석한 인사는 모두 46명. 일본, 홍콩, 독일, 불란서, 캐나다, 미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온 분들로서 이들 가운데 스물다섯 분이 외국형제들이었다. 대부분 부부가 같이 왔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절반 정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외국형제들의 공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암울하고 무서웠던 저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뜻을 같이 했던 용기와 사랑. 실제로 이들의 노력은 대단했다. 이 분들의 공로를 기리고, 이 분들을 우리의 뜻에 계속 동참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것, 정말 뜻있는 일이다. 기념사업회의 마음 씀에 가슴 뿌듯하다. 우리네 해외동포들이야 이렇든 저렇든 어찌 조국을 잊을 수 있겠는가? 떠나온 조국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사는 우리이기에 설사 서운한 대접을 받는다 한들 어떠하랴.

그리고 미국의 선우학원 박사, 일본의 정경모 선생, 독일의 송두율 교수의 입국을 위해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싶다. 비록 정경모 선생님은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송 교수를 이곳 서울에서 만날 줄이야. 나 역시 1997년에야 한국 입국금지조치가 풀렸던 터였다. 진즉 한국에 들어와 가르치고 있는 이종수 교수(KBS 이사장)와의 만남도 뜻밖이었다. 모두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대륙을 넘나들던 열정들이었다. 덧없이 흘러간 세월을 흠뻑 머리에 안고 다시 만났다.

해외민주인사 한마당의 한계

해외민주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일을 토론해 보는 일이야말로 가장 뜻있는 일이며, 이번 행사에서 중요한 대목일 터였다. 그러나 금방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의 민주화운동'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럴까? 물론 한국에서는 막힌 상황을 뚫고 나가는 데 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의 용기와 공로가 컸다.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지나칠 수 없다. 그러나 극히 적은 숫자였다. 대부분의 교

회(99.9%라 해도 좋을 성 싶다.)와 교인들은 한국의 헌법기구임을 내세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와 더불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가로막아 왔다는 사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예도 있다. 해외동포가 처음으로 북과 대화를 갖게 되었다. 이른바 『북과 해외동포기독자간의 대화』(비엔나, 1981. 11.)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참가할 목사가 한 분도 없었다. 신학대학교 교수 강위조 '목사'가 징발된(?) 경위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이번이 두 번째이니까 차차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넉넉한 조성우 기념사업회 이사의 대답이다.

해외운동 · 국내운동권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도 많았다. 국내운동권의 안전을 위해서 제발 자제해달라는 질타성 주문과 함께 국내운동의 한계를 해외에서 뚫고 나가달라는 적극적인 주문. 이에 곁들여 해외운동의 국내 종속이냐, 독자적이어야 하느냐를 놓고 밤을 세워 토론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다.

마음이 확 트이는 도라산 역

오전에 옛 안기부 건물과 서대문 형무소를 현장답사한 끝이어서 내내 아프고 우울하던 마음이 도라산 역에 와서야 확 풀린다.

도라산 역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아세아 · 유럽대륙지도. 이 역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스페인도 가고 영국도 간단다. 그리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 역을 통해서 들어온단다. 얼마나 야무진 꿈인가? 북에서도 서둘러 판문 역을 짓고 있다 한다. 이 꿈이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았으리. 그러나 이게 어디 꿈인가? 잃어버렸던 역사를 다시 찾는 일일뿐이다. 그랬었다. 멀리는 신라의 학승(學僧)들이 이 길을 통해서 중국, 인도에 수행을 떠났고, 이 길을 통하여 유럽에 유학을 가던 때가 불과 반세기 전이었는데 분단이 이 길을 막아 왔다. 그래서 도망갈 자유마저 박탈당해야 했다. 도망갈 자유가 없는 정치. 그래서 한국 정치가 그토록 각박했는지도 모른다. 이 모순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고 있다. 나는 이 엄청난 변화의 길목에서 새삼 광주의 정신과 힘을 느낀다. (우리 일행은 국립5 · 18묘지를 찾아 성묘하였으며, 광주 시에서 베푼 만찬회에도 참석하였다. 광주는 지금도 뜨겁다.)

도라산. 한국 땅에서 흔하디흔한 야산. 개경(開京, 개성) 성밖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야산은 천년사직을 그냥 내어준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배반과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다. 왕건의 후의로 왕건의 딸과 함께 살았다는 곳, 신라의 왕이 살았다는, 그래서 '신라의 도읍'이라는 뜻의 도라(都羅)산. 조선조 때는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 남정네들이 하루 빨리 '돌아' 오길 바라는 여인네들이 이 산에 올라 북으로 뚫린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애잔한 이야기도 안고 있다. 그러니까 배반과 애환, 그리고 기다림이 서려있는 이곳에 남북을 다시 연결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묘한 감흥을 일으킨다.

권위주의 사라진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애증이 수시로 엇갈리는, 참으로 힘든 분이다. 우리 부부는 며칠 밤을 지새우며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빌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심한 실망을 안겨 주었다. 결코 기대가 컸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역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현지에서 주의 깊게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면담에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지금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발전적 과정으로 보았

고, 성급한 통일보다는 확고한 평화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주었다. 즉 북한 인권문제를 인권의 측면에서 다루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니까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며, 따라서 지금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지금 북한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반북논리와 반공단체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터여서(특히 미국에서) 적절한 정리로 받아들여졌다.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도 청와대에서 근엄과 권위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매우 특기할 만 한 일이다. (구중궁궐 식의 낯선 위치, 권위주의적인 건축양식이 방문객을 짓누르는데,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 본다.) 청와대뿐만이 아니다. 한국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해체되는 권위주의사회

이번 한국 방문에서 두드러지게 느낀 점은 한국사회의 변화이다.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물결과 권위주의적인 사회의 해체. 이 당연한 변화에 보수 · 수구세력이 당황과 불안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신분과 이익을 쉽게 누려온 그들이었으니까. 특히 권위주의체제 속에서 '일사불란' 하게 (어쩌면 가장 편한 정치적 삶일 터였다) 정치를 해 온 정치권의 당황과 혼란이 더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 보인다. 사회의 여러 세력이 정치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정치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크게 미쳐 온 한국 사회이니까 말이다. 이점에서는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정치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권위주의적 접근으로 정치개혁을 꾀하지 않았던 것은 현명했다. 사회가 시민의 힘으로 다시 짜여지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대중 정권 아래서 겨우 참아온 분노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절망으로 변했고, 그 절망적인 저항은 전혀 이성을 잃고 있는 듯 하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난 50년간의 투쟁으로 다져진 변화의 동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동력에 송두율 사건은 얼마간 찬물을 껴 얹었다.

송두율 사건이 준 교훈

2003년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 참가자는 물론 한국 사회가 송두열 교수의 귀국을 모두 기뻐하였다. 그리고 당국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마침으로써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모두를 당혹케 하였으며, 사회의 관심은 온통 그에게 쏠렸다.

분명 송 교수는 2003년 해외민주인사초청 한마당에 초청되어 왔다. 그런 그 때문에 한마당 잔치 자체가 사회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기막힌 역설이었다. 사실 해외의 우리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감사도 드리면서 우리가 전할 말도 적지 않았다. 일행 가운데는 1937년에 조국을 떠나 평생을 민족운동에 받쳐온 분도 계셨다. 30년 만에 다시 남한 땅을 밟게 된 그 분의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송 교수는 왜 그랬을까? 법적으로야 의미가 크겠지만,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다, 아니다가 핵심문제일 수 없다. 50보 100보. 그의 고백대로, 그는 1973년에 노동당에 입당하였고, 그 후 북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왜? 우리는 자신과 민족 앞에 좀 더 겸허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다.

송 교수의 문제를 빌미로 보수 · 수구세력의 기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반면, 그런 송 교수일지라도 남한사회가 과감히 껴안아야 한다는 논리 또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전 같았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엄청난 변화다. 이 화해의 힘이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지금의 갈등을 끝내는 녹여 낼 것이다. 민족의 희망을 본다.

그리고 그 희망 위에 일주일 내내 얼굴을 맞대온, 기념사업회의 젊은 실무자들의 풋풋한 얼굴들이 순서 없이 한꺼번에 겹쳐지고 있다.